

새해 새 설계

구자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전남에 17개 명품교량 건설”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명품교량으로 주민 편의는 물론 관광자원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구자명(5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6일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익산국토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에 중점을 두 지속적 관리도 빼놓지 않을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도로 37건 5041억원, 하천 10건 357억원 등 총 53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도 77호선 압해 신장-복용 확장공사와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영광 염산-백수 연결도로 등 도로사업 3건이 신규로 추진되며, 지석천 다시 2지구 등 하천사업 3건도 신규로 사업이 시작된다.

구 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기 집행이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이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간, 월간 단위로 청장직접 챙길 계획”이라며 “자치단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지역업체 참여 최우선

철도·공항·도로망 연계

및 주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고 말했다.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인 ‘호남권 연계교통망 효율화 방안’ 용역을 토대로 광주·전남지역 교통망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지난해부터 철도와 공항, 고속도로, 국도와 지방도 등 모든 도로망의 연계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

했으며 조만간 용역결과를 내놓는다.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도로망 연계성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뒤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4대강사업 구간이었던 영산강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식강과 활동강, 보성강 등 지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익산국토관리청이 특화해 추진하고 있는 해상교량 사업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 청장은 “영산강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새로운 강으로 변신했다”며 “영산강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교량사업은 익산국토청이 가장 내세울 만한 사업 분야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신안 지도~임자를 비롯해 전남에서만 17개의 해상교량 사업을 진행한다”며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해상교량을 만들어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보령 출신인 구 청장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과 대중교통과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임동률기자 exian@

# 금융권 정규직화 나섰다

금융권이 새정부 ‘코드 맞추기’를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광주은행은 지난 2009년~2010년 2년동안 정규직원(텔러)197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과 광주은행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계약직 여직원 220여명을 무기 계약직군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 기존 정규직원과 같은 정년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한생명은 최근 인사에서 여성 관리자를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계약직 정규직원(텔러) 8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전담 텔러 69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지난해 12월 계약직 텔러로 채용돼 연수 중인 143명도 모두 정규

## 光銀 ‘텔러’ 197명

### 정규직 전환 완료

직으로 신규 발행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채용하는 모든 텔러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계약직이 715명인데 채용 후 2년이 지난 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대학진학 시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370명의 무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렸고 기업은행도 기간제 계약직 1132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무기 계약직이 되면 만 59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올해 차례로 모두 400여명 규모의 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기존 계약직이었던 정규직원(텔러) 197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 또 2010년 4월부터 정규직원(텔러) 채용시 정규직 인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현재 광주은행 1700여 임직원 중 특정 기술직, 콜센터 상담직원, 단순 사무보조 인원, 체육직, 운전직 등 150여명만이 비정규직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건전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꽃이아 욕실용품이아

16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생활용품 매장서 인형캐릭터, 꽃 모양의 다양한 욕실용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산업화 장애 극복...부산과 어깨 나란히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7>

연재를 마치며

### 본촌·송암공단 건설 등 생산도시화 운동 결실

지난 1년간 본 기획란은 광복 이후 1960년대에 이르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광주권이 겪어온 시련과 좌절과 시대 상황에 얽힌 이야기를 엮어왔다. 오늘날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말 수출실적이 129억3천만 달러로 부산 125억8천만 달러를 앞지른 전망이다.

이같은 놀라운 성장은 1970년대 중반 지역민들에 의해 불붙기 시작한 광주권생산도시화운동이 그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광복 이후

거들린 지역 산업화의 좌절과 토지자본의 몰락으로 말미암은 지역민의 생존욕구가 그 연원이 된 것이다.

19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광주·전남은 산업화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6·25 한국전쟁이 가열되던 1951년에 단행된 토지 개혁으로 말미암아 산업화의 원동력이 될 농도의 토지자본이 그 자본력을 상실함으로써 산업화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 밖

에 없었고 둘째는 지역간 불균형개발의 폐단을 들 수 있다. 5.16군사정권이 출범한 이후 울산공업단지와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경부고속도로 등 영남에 대한 집중투자로 동·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호남 후대접 시비를 유발했고 이로 말미암은 저항과 억압, 그리고 차별과 소외의 악순환이 산업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는 사회간접자본의 불균형이다. 일제는 당초 대륙침략을 위한 경부선 철도를 복선으로, 호남선은 단선으로 부설, 경·부 중심축에 대한 집중개발을 단행했고 호남선은 농수축산물 수탈을 위한 경부 간선의 지선으로 그 활용도를 제한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경부 축 우선의 국토개발 전략으로 고착되었으며, 5.16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호남고속도로와 산업화의 불균형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1970년대 중반 광주권 주민소득은 낙후지역 대명사였던 강원·제주보다 못한 전국 최 하위를 맴돌고 있었다. 소외와 가난으로 소비도시 병폐를 앓고 있던 지역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권생산도시화 운동의 깃발을 들고 자력으로 본촌, 송암공업단지를 건설했다. 한국 최초 민간공업단지인 45만평의 이 작은 공단 건설이 기록제가 된 생산도시화 운동은 오늘날 세계적인 백색가전단지로 도약한 하남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등 국가 산업단지를 포함, 9개 단지 8백여만 평을 아우르게 되었으며, 부산을 능가하는 수출실적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획란에서는 광복 후 1960년대에 이르는 위의 네 개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위중 (연문인)

# 전남産 김 수출 106% 급증

## aT 광주전남지사 실적 분석...파프리카는 72% 늘어

광주·전남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와 김이 세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장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농산물 수출실적이 4억4600만 달러로 전년 3억9500만 달러 보다 13.1% 증가했다. 광주는 1억5200만 달러로 작년 1억3100만 달러보다 15.5%, 전남은 2억9400만 달러로 작년 2억6300만 달러보다 11.9% 늘었다.

특히 파프리카와 김의 성장세가 두

드러졌다. 파프리카는 유리온실 등 재배면적이 확대한데다 엮고 현상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나 급증해 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류별로는 농산식품이 2억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4%, 수산식품 1억6900만 달러로 13.3%, 임산물 3400만 달러로 25.5% 증가했으며 축산물은 700만 달러로 27.1%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실적은 80억700만 달러로 전년 76억9100만 달러 대비 4.1%가 증가했다. 이중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농산물 수출 비중은 5.6%로 나타났다.

성장현 지사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태풍 피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지난해 우리 지역 수출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며 “올해는 경기침체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고품질 원물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자체 투자와 마케팅이 더해진다면 성장세를 잇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미기자 emlee@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www.cjhellevision.com

CT 엘로비전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가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할리데이팅 헬로넷

이웃에게 헬로tv

모든 것 헬로넷

간편하게 헬로넷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